

담당부서 : 주력산업과

담당자 : 최진택 주무관

연락처 : 055-211-3115

경남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4개 과제 추가 선정… 올해 총 16개 추진

- 경남도 전국 최다 선정…총 62.9억 원(국비 33.6억 원) 투입
- 창원·진주·김해·함안 등 도내 주요 산업 현장에 AI·비전 시스템 결합
첨단 로봇 구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통상부의 ‘2026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2차 공모에 도내 4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 1차 공모 선정 과제 12건을 포함해 올해 경남에서 추진되는 첨단제조로봇 실증과제는 총 16건 총사업비 62.9억 원(국비 33.6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로봇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실증하는 사업이다. 공정 설계 컨설팅부터 로봇 시스템 구축, 현장 실증, 작업장 안전인증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는 총괄주관기관인 (재)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기업들의 정밀가공·검사·단조 등 고위험 및 고난도 공정 자동화 수요를 발굴하고, 공모 대응에 지원해 이번 추가 선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창원·진주·김해·함안 지역의 방산·기계·자동차 부품 등 주력 제조업체 4곳이 선정됐으며, 정밀가공·검사·고충량 소재 단조·이적재 등 핵심 공정에 첨단 로봇 시스템이 구축된다.

선정 기업에는 총 16대의 산업용 로봇과 비전 시스템, AI, 빅데이터 수집, 제조 실행시스템(MES) 등 공정지능화 기술이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밀가공품 이송과 검사, 자동차부품 이적재 등 반복적이거나 작업자 부담이 큰 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제조원가 감소,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추가 선정으로 경남의 주력 제조업 현장에 첨단제조로봇 보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올해 선정된 총 16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경남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력산업과 최진택 주무관(055-211-3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2차 공모 선정 결과 보고

□ 2차 공모개요

- (공모기관) 산업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사업목적)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통한 첨단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디지털전환 가속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26. 8. 1. ~ 12. 31. ※ 2020년부터 매년 공모 실시
 - (사업내용) 제조공정 내 로봇시스템 구축 및 설치 비용 지원 등
 - (예산규모) 국비 70억원 내외 / (지원과제) 공정모델형*
- * 기 개발된 로봇공정모델의 제조현장 적용을 통한 실증

□ 2차 공모 추진배경

- (추가 공모 실시) 정부 추경예산('26. 4. 10.) 편성에 따라, 제조기업의 높은 로봇 도입 수요 대응 및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해 2차 공모 추진
- ※ 1차 공모 공고 : '26. 3. 13. ~ 4. 13. / 2차 공모 공고 : '26. 6. 1. ~ 6. 30.

□ 2차 공모 선정결과

- (선정현황) 총 4개 과제
- 수요기업 소재지 : 창원 1, 진주 1, 김해 1, 함안 1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26년 합계		2026년 2차 공모		2026년 1차 공모	
	과제선정	국비확보	과제선정	국비확보	과제선정	국비확보
합 계	16	33.6	4	12.3	12	21.3
공 정 모 델 형	13	29.9	4	12.3	9	17.6
재제조지원형	3	3.7	-	-	3	3.7

※ '26년 경남도 총사업비 : 6,290백만원(국 3,364, 도 245, 시군 573, 민간자부담 2,108)

□ 조치계획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